



4면

한옥마을 전북대 옛 총장 공관 개방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음 10월 18일) 제313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도, 주최자 없는 행사·집회 등 재난위기 상황 대응방안 마련

경찰·소방·시군 재난안전부서 등 참여
예기치 못한 다중집합 위기대응 TF팀 가동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주최자 없는 행사, 집회 등 예기치 못한 다중집합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방안이 마련된다.

먼저, 전북도는 경찰, 소방, 시·군 재난안전부서, 재난위기 전문가로 '예기치 못한 다중집합 위기상황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논의, 향후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장 연말, 연초 대규모 다중모임이 예상되는 장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재난위기 상황 발생 시 징후감지→초기 대응→비상대응→수습복구 절차가 이행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위기상황 안전관리·통제위원'을 위촉해 다중집합 안전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사, 집회를 상주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주최·주관이 없는 경우, 112 치안중합상황실과 시·군 재난안전부서에 즉시 신고하여 현장에 신속하게 질서요원과 구조구급요원이 배치 되도록 하여 현장질서유지와 통제가 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주최·주관이 있는 경우에도 현장에 있는 '위기상황 안전관리·통제위원'으로 하여금 시·군 재난안전부서에 신고해 안전 대책 수립 여부 등을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12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다수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장 중요한 만큼, 우선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 예기치 못한 다중집합 위기상황 대응 전담팀'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세부적 대응시스템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북대 총장 후보자 선거운동 본격화

도선관위, 22일까지... 공개토론·합동연설 등 가능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 실시하는 제19대 전북대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선거에 이어 총 8명의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은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이며, 전북대총장임용후보자선거규정(이하 선거규정)에서 정한 다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총장이 개설·운영하는 선거홈페이지(https://president.jnu.ac.kr)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화상·동영상 등 게시와 학내정보통신망 이용한 전자편지 전송, 선거인에게 직접 전화 및 문자(SNS포함) 전송,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 공개토론회 및 합동연설회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교육공무원법과 선거규정에 의해 후보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선거운동 목적 금품 제공 등 △선거와 관련한 연구실 등 호별방문 및 집회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행위 등으로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치는 중대선거범죄에 속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식의 산실인 대학의 총장 선거인 만큼 법규가 잘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10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MOU 체결식에 김관영 도지사(오)와 황병구 미주 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 등이 경제교류협력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미주 한인상의총연합회 경제교류협력 '맞선'

美 기업, 전북 투자 활성화
세계한상대회 유치 등 협력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오)은 10일 미주 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황병구)와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1980년 뉴욕에서 설립돼 2021년 황병구 회장을 28대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150만 미주 한인 상공인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산하에 6개 지역협의회와 8개 지역 한인상공회의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 경제 전반에 대한 교류 및 2024년 세계한상대회의 전북 유치에 상호 협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한상대회는 전세계 한인 상공인들이 모이는 경제 관련 대규모 행사로 4,000여명의 참석 규모를 자랑하며, 지역 유망 중소기업 제품 수출, 지역인재의 해외 취업 알선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사로 주목 받고 있다.

주요 협약 체결 내용으로는 대미 수출 확대 등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미국 기업에 대한 전북 투자 알선 및 정보 제공 등이다.

특히, 내년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에 대한 전북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2024년 세계한상대회의 전북 유치를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수 기자

완산초-곤지중 통합운영학교 '탄력'

도교육청, 학생·학부모 대상 투표 결과
완산초 67.4%·곤지중 84.4%가 '찬성'
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해 최종 확정
완산초초-효정중 찬반투표 이달 중 실시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주완산초등학교와 전주곤지중학교의 '통합운영학교'가 탄력을 받고 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운영학교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주완산초는 67.4% 전주곤지중은 84.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주화정중(예코시티)과 전주영현중(혁신도시)의 신설 승인을 조건으로 개교 이전에 구도심 중학교 2개교를 적정규모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놓았다.

하지만 적정규모화가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았고, 교육부는 올해 12월 까지로 조건부 이행 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과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적정규모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채택했으나 응모 학교가 없었다.

그러다가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통합운영학교 방식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변경하면서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통합운영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등 동일 부지 내 학교를 묶어 운영하는 학교다. 교장 1명에 각 학교마다 교감을 두는 통합운영학교는 행정실 급식실 체육관 운동장 등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한다.

도교육청은 전주완산초-전주곤지중 전주완산초초-전주효정중을 통합운영학교 대상으로 선정, 19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설득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9일 전주완산초와 전주곤지중 학생·학부모를 대상

로 한 투표에서 전주완산초 응답자의 67.4%, 전주곤지중 응답자의 84.4%가 찬성표를 던졌다.

학생·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통합운영학교 여부가 확정된다.

통합운영학교로 확정되면 해당 학교에는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하늘인 미래학교'로 우선 지정될 수 있으며, 재정지원금 10억 원과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우선 지원된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국제교류수업연계체험학습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 혜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지정 등을 통한 교육복지사 배치와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주완산초와 전주효정중의 통합운영학교 찬반투표는 이달 중 실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운영학교를 결정해 준 전주완산초와 전주곤지중학교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활동과, 학생교육복지 등 미래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 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토·일요일신문 쉽니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